

# 농·어촌 어르신 위한 알기쉬운 눈높이 설명 '눈길'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 곳곳의 민원·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직접 챙기며 주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한 '알기쉬운 눈높이 설명' 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봄날,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살펴봤다.

### ▲'명사십리 연결도로 개선해 서해안 최고의 해안도로 만들 것'

심덕섭 고창군수는 현장행정 첫 방문지로 상하면 군도 1호선 확포장 공사현장을 찾았다.

상하면 군도 1호선은 전국 최고의 직선형 해변인 고창 명사십리를 감상할 수 있는 도로다.

심 군수는 이 도로를 노을대고, 고창 종합테마파크와 연계해 서해안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명품 관광 도로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해수부 국민안심해안 공모사업에 선정돼 침식 방지를 위한 약 2km의 모래 보충(양빈)과 염생식물 식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봄계 타오르는 노을과 짙은 모래사장, 해송 숲이 어우러지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심 군수는 심원면 죽곡마을 노후주택 정비 현장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다. 특히 현장에 참석한 주민 20여명은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산림·수변자원 활용 관광·치유 메카로 만든다'

현장행정 두 번째 방문지인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지. '양고살재'는 고창을 석정리에서 장성군 북이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창출신 박의 장군이 병자호란 때 적장 양고리를 사살한 것으로 기념해 붙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군은 이곳에 총사업비 62억원(도비 30억원 지원) 규모로 감성카페, 전망대, 쉼터, 산악자전거 코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심 군수는 "지난해 고창과 전남 장성간 지방도가 확장 개통되면서 호남고속도로와 백양시역을 통한 관광거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며 "양고살

재의 관광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지역의 대표 관광 휴양 명소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수산 관광자원화 사업지도 찾았다. 군은 고수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조산저수지에 탐방데크와 전망대, 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 시원한 물이 쏟아지는 '신기계곡'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문수사 얘기단풍', 을 상반기 본격 운영을 준비중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하 '국립고창치유숲'과 연계해 호수-계곡-산림치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테마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활동공간과 체험관광 요소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해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산·무장 숙원, 강남지구 상습 침수 해결할 것'

고창군 이산면과 무장면민들의 숙원인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로 시시때때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만큼, 공사지체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가 추진된다.

강남지구는 추진전과 강남천이 합류되는 지점(106.7ha)을 말한다. 아산면 4개 마을(대동, 주진, 북동, 남산리)과 무장면 북우리 일원이 영향권이다. 이곳에 배수문 3개소를 신설 및 확장하고, 4.6km의 배수로를 만들고, 9.8ha에 지대를 높인다.

심 군수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를 독려했다. 또한 하천정비 공사로 발생한 흙탕물 등 영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방지시설 설치 등을 꼼꼼히 챙겼다.

앞서 추진전은 2020년 여름에도 수해



심덕섭 고창군수가 현장행정 첫 방문지인 상하면 명사십리 연결도로 현장에서 사업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지를 방문한 심덕섭 군수가 사업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심원면 죽곡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명사십리 연결도로 개선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  
고창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사업 등  
곳곳 현안사업 현장 방문

“올해 주민 실질 소득향상  
생활여건 개선에 집중”

로 제방일부가 유실되며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날 심 군수의 현장방문에는 무장과 아산면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당시 아찔했던 기억을 얘기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건의했다.

심 군수는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저를 포함한 모든 고창군 공무원은 책임행정에 늘 진심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고창고인돌박물관 주변 자연생태원 조성해 즐길거리 확충'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5일 현장행정 마지막 방문지로 고창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현장을 찾았다. 박물관 맞은편 공터에는 '고창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총사업비 47억원, 국비 15억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생태원은 자생 생물자원(천연물, 종자, 표본)의 보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구온난화 같은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생물자원들이 사라질 것에 대비해 만든 일종의 '노아의 방주'인 셈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고창군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농촌 마을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을 계속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휴식 공간을 만들어 행복고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강남지구 배수개선 사업지를 찾은 심덕섭 군수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남지구 배수개선 사업지를 찾은 심덕섭 군수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라운드 서학 2024

# GROUNDSOHOHAK

김누리 이주원  
손은영 박미정 박재연  
조진규 김시오 노미정

INVITATION EXHIBIT  
2024. 3. 21 ~ 4. 10

Sëohak 서학아트스페이스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

아트갤러리 전주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 (전주아트센터)  
AP 9 / 콘서트서학